

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¹⁾

1

연구배경 및 목적

-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 한국 국적 미취득자, 한국국적 취득자, 그리고 그 자녀로 구분함. 그리고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근로자, 결혼이민자, 유학생, 외국국적동포, 기타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있음(행정안전부, 2021)
-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은 2020년 11월 기준 4만 480명으로 광주광역시 총 인구의 2.7%에 해당하고 이는 2016년 대비 29.9% 증가한 수치임. 7대 특별·광역시와 비교하면 인천의 외국인주민 증가율(38.2%)이 가장 높고 광주는 두 번째로 높은 지역에 해당하였음
- 한국사회는 사회구조적인 변화 및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고 광주에서도 외국인주민의 증가 및 영구 거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. 이제 외국인주민은 잠깐 머물고 떠나는 주체가 아닌 함께 정착하여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임. 따라서 외국인주민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곳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외국인주민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 통합 차원의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음
-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특성과 생활실태,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외국인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CONTENTS

01 1p

연구배경 및 목적

02 2p

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
생활 실태

03 8p

시사점

1) 본 내용은 광주복지연구원(2022)에서 수행한 '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'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구성하였음

2

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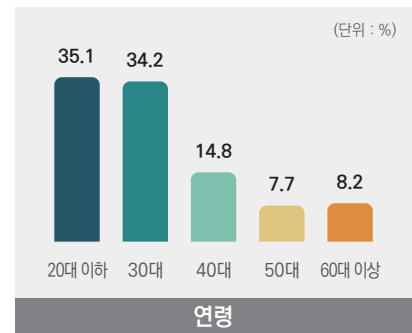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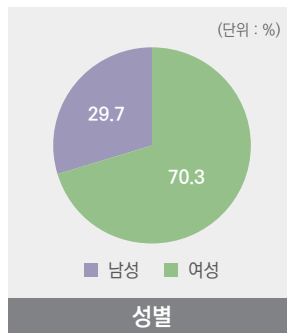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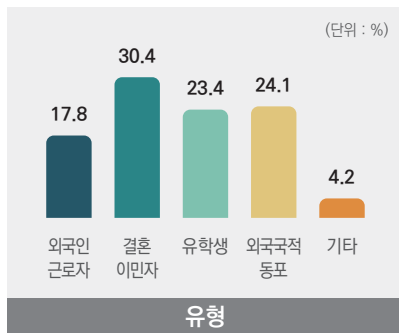
1) 조사대상 및 방법

- 조사대상: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외국인주민 427명
- 조사기간: 2022. 6. 22. ~ 2022. 7. 25.
- 조사내용: 일반적 특성, 주거환경, 의료환경, 사회적 관계, 근로환경, 정책 욕구
- 조사방법: 중국어,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설문지 번역 후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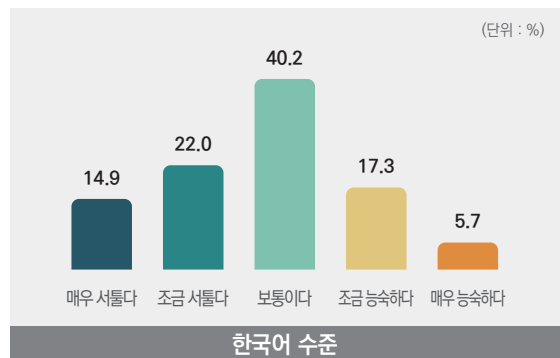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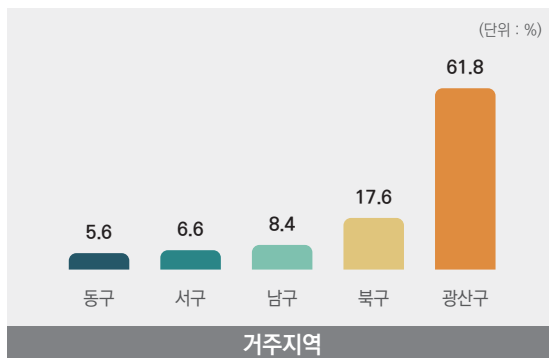
2) 조사결과

(1)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

- 조사대상자는 결혼이민자가 30.4%, 외국국적동포가 24.1%, 유학생이 23.4%이고 외국인근로자가 17.8%, 기타 외국인이 4.2%임. 이 중 여성이 70.3%, 남성이 29.7%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
- 연령은 20대 이하가 35.1%, 30대가 34.2%로 20~30대가 69.3%를 차지하였고 40대가 14.8%, 50대가 7.7%, 60대 이상이 8.2%를 차지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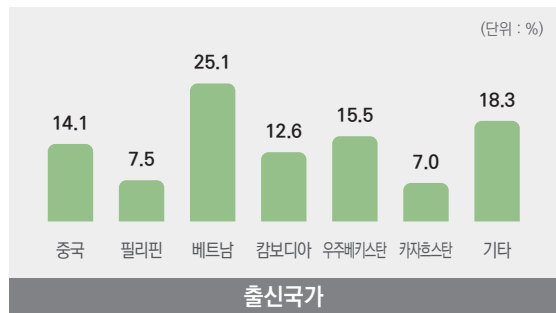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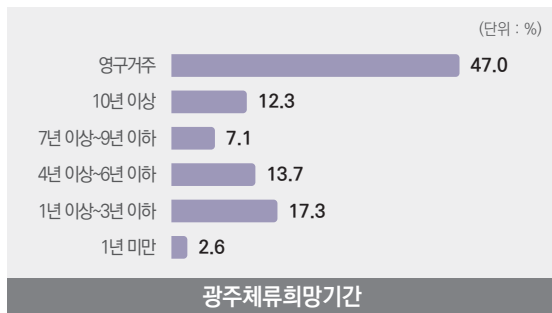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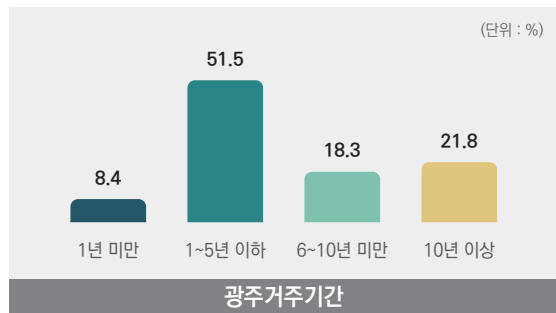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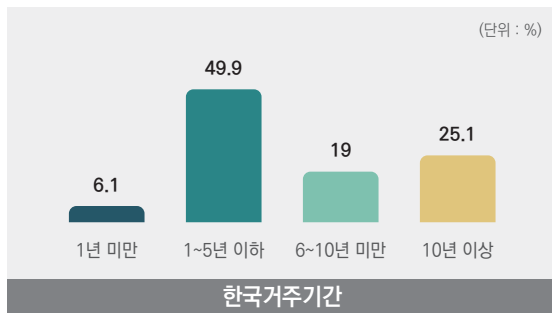


- 거주지역은 광산구가 61.8%로 가장 높았고 북구, 남구, 서구, 동구 순으로 나타남
-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수준은 '보통이다'가 40.2%로 가장 많았고 '서툴다'가 36.9%(매우 서툴다: 14.9%, 조금 서툴다: 22.0%)로 나타났고, '능숙하다'가 23.0%(매우 능숙하다: 5.7%, 조금 능숙하다: 17.3%)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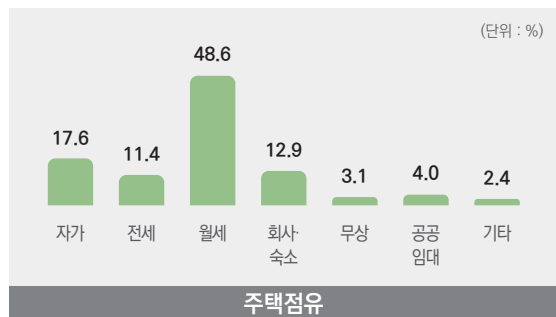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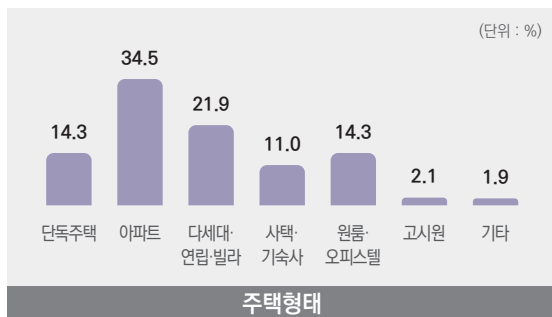
(2) 조사대상자의 체류 특성

- 한국 거주기간은 '1년 이상~5년 이하'가 49.9%로 가장 많았으며, 광주 거주기간도 '1년 이상~5년 이하'가 51.5%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한국과 광주에 '1년 이상~5년 이하'의 거주기간을 보임
- 광주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기간을 보면, 영구 거주가 47.0%로 가장 많았으며 '1~3년'이 17.3%, '4~6년'이 13.7%, '10년 이상'이 12.3%순으로 확인되었음
- 외국인주민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, 베트남이 25.1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(15.5%), 중국(14.1%), 캄보디아(12.6%), 필리핀(7.5%), 카자흐스탄(7.0%) 등 6개 국가에 80% 이상 집중되어 있고 기타(18.3%)에는 러시아, 미국, 몽골, 일본 등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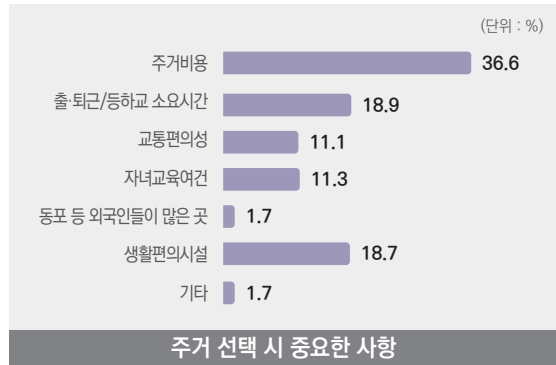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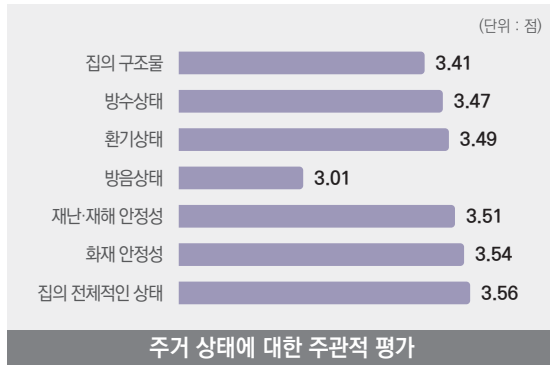


(3) 주거환경

- 외국인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34.5%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·연립·빌라가 21.9%, 단독 주택과 원룸·오피스텔이 각각 14.3%, 사택·기숙사가 11.0%로 나타남
-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가 48.6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가가 17.6%, 회사·숙소가 12.9%, 전세가 11.4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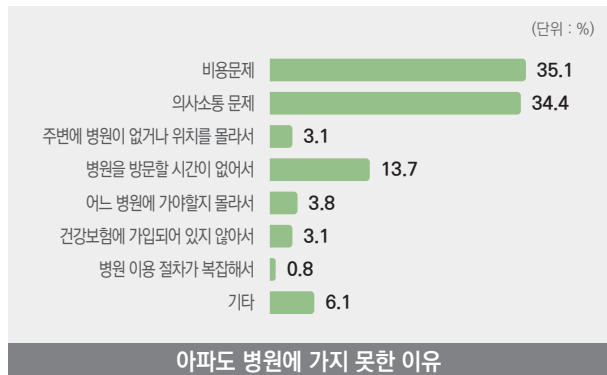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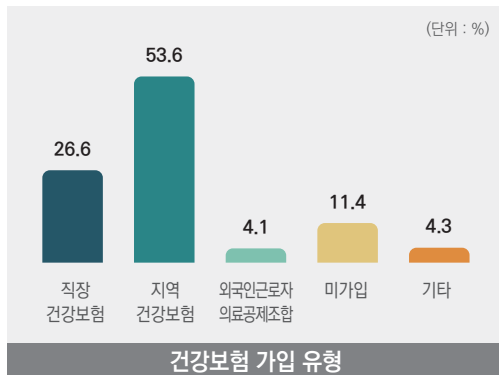


-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, 6가지 개별 항목과 전체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가 모두 '보통'인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주거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음
- 집의 전체적인 상태는 3.56점이고, 세부 항목별로는 화재 안전성이 3.54점으로 가장 높았고 방음 상태가 3.01점으로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
- 외국인주민이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주거비용(36.6%)이고 출·퇴근/등·하교 소요시간(18.9%)과 생활 편의시설(18.7%)도 주거 선택 시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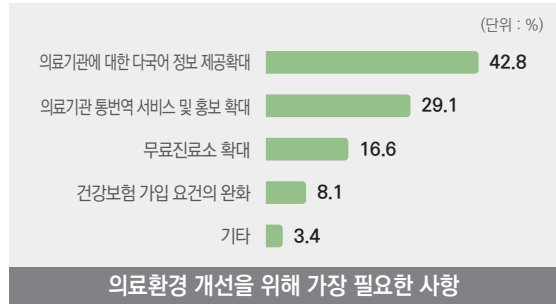


(4) 의료환경

- 건강보험 가입은 '지역건강보험' 가입 비율이 53.6%로 높게 나타났고, '직장 건강보험'도 26.6%로 나타남. 하지만 외국인주민의 11.4%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가입 상태로 나타나 이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음
-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'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'에 대해 조사한 결과, 비용 문제(35.1%)와 의사소통 문제(34.4%)가 주된 원인으로 확인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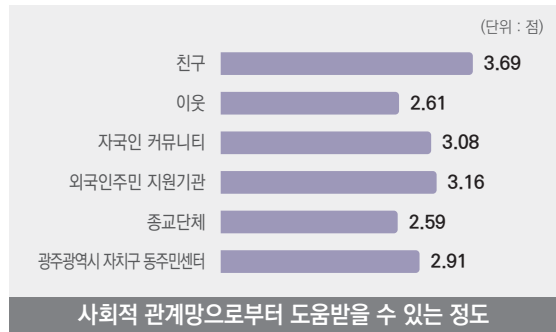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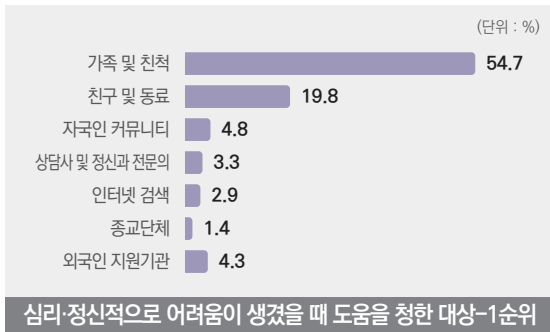


- 광주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(49.1%)이 가장 높았고, 높은 진료비용(17.8%), 약국·병원 등 의료기관 정보 부족(10.9%) 순으로 나타남
- 외국인주민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'약국·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다국어 정보 제공 확대'(42.8%)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의료기관 통번역 서비스 및 홍보 확대(29.1%), 무료 진료소 확대(16.6%)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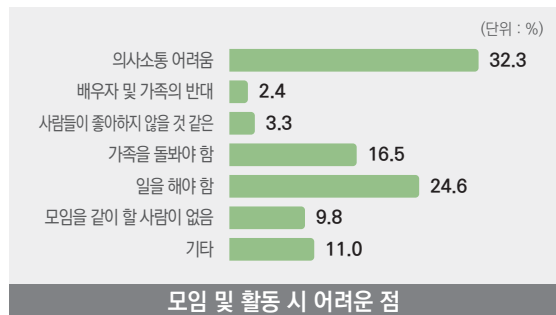


(5) 사회적관계

- 최근 우울 등 심리·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한 대상(1순위)은 가족 및 친척이 54.7%로 가장 높았고 친구 및 동료도 19.8%로 나타남
-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'친구'가 3.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(3.16점)과 자국인 커뮤니티(3.08점) 순으로 나타남. 하지만 종교단체(2.59점)와 이웃(2.61점),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, 동주민센터(2.91점)는 '보통'인 3점 이하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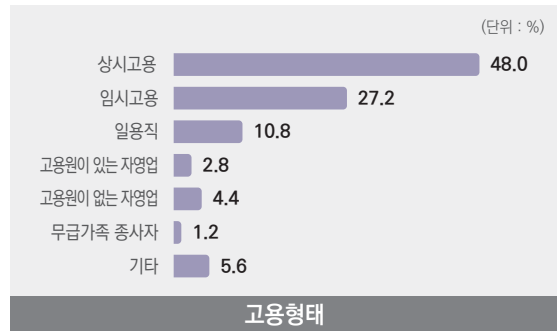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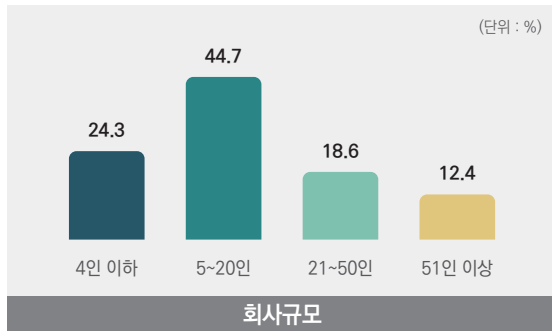


- 모임 및 활동 참여의향을 살펴본 결과 자국인 친구모임(70.0%)이 가장 높았고 한국 친구모임(65.0%), 자국인 커뮤니티(63.4%), 자원봉사활동(62.2%), 민간단체활동(55.3%), 지역 주민모임(52.2%) 순으로 나타나 자국인 친구모임에 이어 한국 친구모임에 대한 참여의향도 높게 나타났음
- 외국인주민이 모임이나 활동 참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사소통 어려움(32.3%)으로 확인되었고 일을 해야 하거나(24.6%) 가족을 돌봐야(16.5%) 하는 등 생계와 관련된 일로 인해 여유 있는 모임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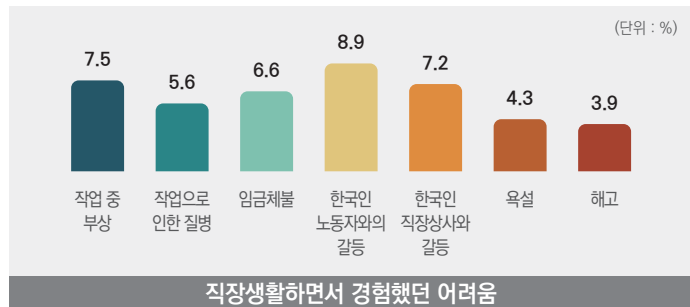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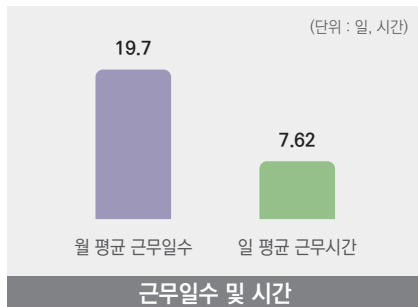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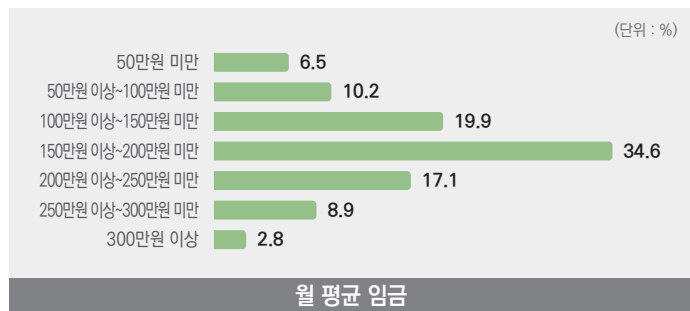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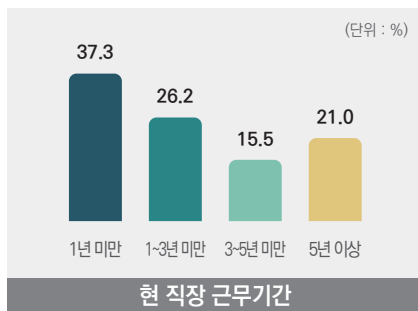


(6) 근로환경

- 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257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음
- 회사규모는 '5인 이상~20인 이하'가 44.7%로 가장 많았고 '4인 이하'(24.3%), '21인~50인 이하'(18.6%), '51인 이상'(12.4%) 순으로 나타남
- 고용형태는 상시고용(48.0%)이 가장 많았고, 임시고용(27.2%), 일용직(10.8%)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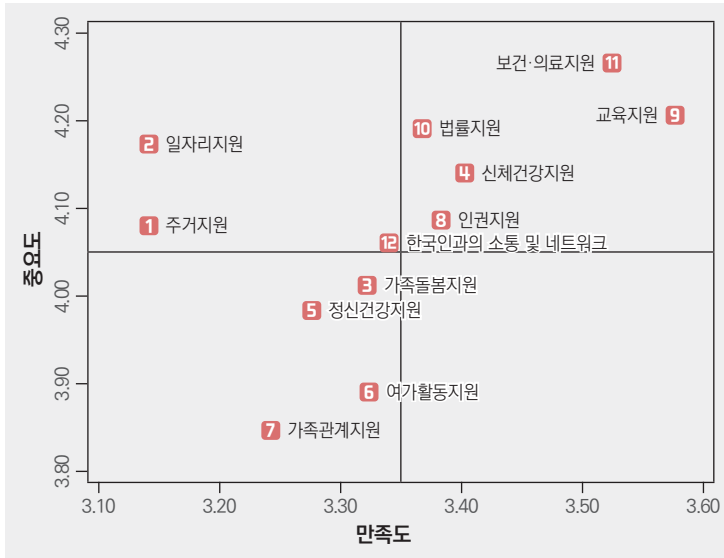


- 근무기간은 '1년 이상~3년 미만'(26.2%)이 가장 많았고 '1년 미만'(37.3%), '5년 이상'(21.0%), '3년 이상~5년 미만'(15.5%) 순으로 나타남
- 현 직장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19.70일이고 일 평균 근무시간은 7.62시간임
- 월 평균 임금은 '150만원 이상~200만원 미만'이 34.6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'100만원 이상~150만원 미만'이 19.9%, '200만원 이상~250만원 미만'이 17.1%로 나타남
-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움이나 부상 등을 경험했던 외국인주민은 58.0%였고 이 중 가장 많이 겪었던 어려움은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(8.9%)이었음. 작업 중 부상(7.5%), 한국인 직장 상사와의 갈등(7.2%), 임금체불(6.6%), 작업으로 인한 질병(5.6%) 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



(7) IPA분석을 통한 외국인주민 정책 지원 방향

외국인주민이 지각하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측정하여 IPA 분석(Importance-Performance Analysis)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



● 중점투자 영역(2사분면):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영역으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

외국인주민은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, 일자리, 한국인과 소통 분야에 대해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. 이 분야는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사업 분야로 다른 사업 및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

- **유지강화 영역(1사분면): 정책 중요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영역으로 외국인주민이 중요하게 지각한 분야**
외국인주민은 신체건강지원, 인권지원, 교육지원, 법률지원, 보건·의료지원 사업 및 정책 분야에 대해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으며, 동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이는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유지와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
- **점진적 개선 영역(3사분면): 정책의 중요도도 낮고 만족도도 낮은 사업으로 시급성이 낮은 정책 분야**
외국인주민은 가족돌봄지원, 정신건강지원, 여가활동지원 등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낮게 지각하고 있음. 이 분야 사업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

3 시사점

●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

- 외국인주민이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언어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임
- 현재 광주에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은 약 19개소로 확인되었으나 가족센터는 대부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그리고 자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 지원기관은 인력 및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여 많은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존의 외국인주민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주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정보 등이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● 외국인주민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

- 현재 한국어 교육 및 기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매우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 양도 매우 적어 익숙하지 않는 언어를 활용한 외국인주민의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음
- 통합 플랫폼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광주의 다양한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의 교육 및 커뮤니티 등을 한 군데에 모아 외국인주민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
- 또한 외국인주민의 경우 PC보다는 모바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앱을 활용할 경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주민 간 정보 격차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임

● 중점투자영역의 지원방안

① 광주광역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

- 외국인주민 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거의 부재함. 또한 일자리는 경제적 상황과 직결되어 매우 시급하게 개선할 영역으로 보임
- 외국인주민의 장점을 활용할 수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교육이 필요함. 통·번역 지원, 돌봄 인력과 연결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, SNS 및 컴퓨터 활용 교육 등 외국인주민 유형 및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함. 또한 직장생활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광주광역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근로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

②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

- 외국인주민 주거지원은 일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지만 이는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됨
- 부동산 및 계약 용어는 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거래하는 금액(보증금 등)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임. 따라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전문 통역사 양성 및 지원이 필요함.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광주에 유입되어 사업장 찾거나 일이 없어 사업장을 이동할 경우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들을 위한 쉼터 확보가 필요함

③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방안

- 외국인주민 유형에 따라 관심사 및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나 활동 종류, 참여율에 차이가 있음
- 외국인주민 봉사단을 운영하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. 자원봉사활동은 외국인주민에게 광주 내에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선주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됨. 또한 20~30대의 외국인주민의 활동성과 SNS 활용 능력을 고려하여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외국인 입장에서 광주광역시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

참고문헌

행정안전부(2021).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. 행정안전부.